5대양 6대주 광폭행보, 민간 경제외교役까지 '톡톡'

JY 경영복귀 1년

❷ 글로벌 경영 시동

전세계 주요인사 만나 활동 나서

신흥시장 공략·미래사업 창출 박차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왼쪽)은 지난해 인도 노아다 제2공장 준공식에 참석해 문재인 대통령(오른쪽 두번째)과 인도 나른데라 모디 총리(오른쪽)을 직접 안내하면서 경제 외교관 역할을 톡톡히 해냈다. /연합뉴스

올해 삼성전자 실적 전망은 어둡다. 반도체 위기가 예상보다 오래 지속되는 영향이다. 삼성전자발 실적 악화는 대한민국 경제에도 그림자를 드리우는 모양새다.

이재용 부회장 발걸음에 관심이 집중되는 이유다. 이 부회장은 지난해부터 전 세계 주요 인사들을 만나 직접 영업 활동에 나서는 것은 물론이고, 경제 외교관을 자처해 대한민국 살리기에도 큰 도움을 주고 있다.

◆'신출귀몰' 글로벌 행보

이 부회장은 지난 해 2월 경영에 복귀한 후 한달여가 지나자마자 글로벌 광폭 행보를 시작했다. 매달 한 번 이상은 비행기에 탑승해 전 세계 주요 인사들을 찾았다.

일정 중에서는 인도 방문이 가장 두드러졌다. 지난해 7월과 12월, 그리고 올 들어서도 한 차례 인도로 넘어갔다. 문재인 대통령을 처음 만난 것도 삼성전자 노이다 공장 준공식에서였다.

인도 방문 목적은 현지 시장 공략으로 추정된다. 인도는 세계에서 가장 큰 신흥 시장 중 하나다. 빠르게 발전하면서 소비도 크게 늘어나는 중이다.

이 부회장은 현지 5G 네트워크 장비 공급을 위해 전방위적 노력을 들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두 차례에 걸친 릴라이언스 인더스트리즈 무케시 암바니 회장 자녀 결혼식에도 직접 방문해 이목을 끌었다.

그 밖에도 이 부회장은 신흥시장 공략을 위한 행보를 이어갔다. 지난해 10월 베트남 응우옌 쑤언 푹 총리와 면담을 하고, 올해 2월에는 아랍에미리트(UAE) 모하메드 빈 자이드 알-흐얀 왕세제와 면담을 했다.

미래 사업 창출을 위해서도 힘껏 뛰었다. 유럽과 일본, 북미 등을 찾아 인공지능(AI)과 전장사업을 살펴보고, AI 연구센터 설립 행진도 이어갔다. 지난해에만 6개의 AI연구센터를 개소하고, 올해에도 유럽에 새로운 센터 설립을 추진 중이다.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과 협업도 이끌어냈다.

이 부회장은 출장에서 연구센터 핵심인 우수 인재 영입에 공을 들였다는 후문이다. 마이크로소프트 출신 레리핵 전무와 앤드루 블레이크 박사를 비롯해 마야 팬틱 교수, 다니엘 리 부사장 등 전문가들이 삼성전자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유망한 스타트업을 발굴하고 인수한 것도 이 부회장의 솜씨다. 올 들어 이스라엘 코어포토닉스와 영국 푸드테크 스타트업 위스크까지 품에 안았다. 독일 베리미와 이스라엘 헬시아이오 등에도 투자하며 미래 준비에 한창이다.

◆'경제 외교관' 역할까지

이 부회장 광폭 행보는 삼성전자를 넘어 대한민국 경제에도 큰 영향을 주고 있다. 이 부회장을 '경제 외교관'으로 칭하는 이유다.

UAE와의 협력 강화는 이 부회장의 대표적인 성과 중 하나다. 이 부회장은 지난달 정상회담에 앞서 UAE 모하메드 왕세제를 만나 IT 관련 협력을 논의했고, 방한했을 당시에는 가장 먼저 삼성전자로 초대해 안내를 직접 맡기도 했다. 이어서 열린 청와대 오찬행사에도 참여해 양국간 협력 의지에 힘을 실었다.

인도와의 관계 제고 역시 이 부회장 역할이 컸다. 지난해 노이다 삼성전자 공장 준공식에서는 인도 나렌드라 모디 총리와 문재인 대통령을 직접 안내했다. 모디 총리 요청에 따른 것이다. 모디 총리는 지난달 방한시에도 이 부회장을 국빈 오찬에 초대해 서로의 관계를 확인시켜주기도 했다.

남북 관계 개선에서도 이 부회장은 중요한 임무를 맡았다. 지난해 남북정상회담 당시 북측으로부터 뜨거운 구애를 받았던 이 부회장. 최근 김정은 위원장이 삼성전자 베트남 공장을 방문할 가능성이 제기됐을 만큼 북한 경제 개방 핵심 인물로 떠오르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정계 관계자는 메트로 신문과의 통화에서 "이 부회장의 경제행보는 국내외를 가리지 않았다"며 "그래서 아랍에미리트 왕세제도 우리나라를 방문해 문재인 대통령에 앞서 이 부회장을 만난 것으로 안다. 우리나라에 적지 않은 영향을 주는 게 사실"이라고 평가했다.

/김재웅 기자 juk@metroseoul.co.kr

저축은행 신용대출 금리인하 후폭풍

갈 곳 없는 저신용자… '불법 사금융' 손댄다

금리인하 후 8등급 차주도 대출 거절

불법 사금융 이용 피해자 지속 증가

저축은행의 가계신용대출 금리가 하락하고 있지만, 정작 돈이 필요한 서민들은 고금리의 불법 사금융으로 내 몰리고 있다.

11일 저축은행 업계에 따르면 지난 2007년부터 대출 금리가 지속적으로 낮아짐에 따라 7등급 이하 저신용자들의 대출이 어려워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저축은행 업계 관계자는 "재작년 가계대출 금리가 24%로 내려가기 전까지는 9등급 저신용 차주의 대출도 취급했으나 최고 금리가 24% 이하로 떨어짐에 따라 8등급 차주의 대출도 거절되는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대출금리를 낮췄음에도 저신용자에 대한 신규 대출규모나 대출자수에 큰 변동이 없었다는 금융당국의 설명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6일 저축은행 가계신용대출 금리동향을 발표하며 고금리대출의 취급이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7등급 이하 저신용자에 대한 신규 대출규모나 차주수에는 큰 변동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월평균 저신용 차주수는 1만3100명으로 지난 2017년 1만3900명 대비 5.5% 감소했으나, 월평균 저신용자 대출액 1132억원은 전년도 수준인 1060억원과 비슷하게 나타났다는 것.

그러나 저축은행 업계는 이같은 조사결과는 이미 대출금리가 전년대비 7% 이상 낮춰진 지난 2017년 이후부터 집계된 것으로, 이미 저신용 차주의 대출규모는 이전부터 꾸준히 감소돼 왔다고 강조했다.

실제 가계신용대출의 법정최고금리는 지난 2002년 대부업법 제정당시 연 66%에서 2007년 10월 연 49%로 큰 폭으로 인하된 이후, ▲2010년 7월 연 44% ▲2011년 6월 연 39% ▲2014년 4월 연 34.9% ▲2016년 3월 27.9% ▲2018년 2월 24% 등 단계적으로 약 4%~7%포인트씩 인하돼 왔다. 이에 금융당국이 제시하는 근거는 저신용 차주수와 대출액이 감소하고 있다는 사실을 제대로 드러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저축은행 업계 관계자는 "저신용자에 대한 신규 대출규모의 증감을 실질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는 지난 2016년 이전 수치와 비교해 봐야 한다"며 "이전 기록과 비교해보면 저신용자인 7~10등급 차주의 대출 규모는 확실히 줄어드는 추세다"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16년부터는 불법 사금융을 이용하는 피해자 수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의 대출금리 인하 압박으로 저신용자들의 제도권 대출이 억제돼 발생한 현상으로 해석할 수 있다.

실제 한국대부금융협회 조사에 따르면 사법당국과 피해자로부터 의뢰받는 연간 불법 사금융 피해 규모는 지난 2015년 262건, 2016년 310건, 2017년 1679건에 이어 지난해 1762건으로 꾸준히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축은행 업계 관계자는 이에 대해 "금융당국에서 파악하지 못하는 불법 사금융의 규모가 점점 커지고 있다"며 "지난번 개최된 학술대회에서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법정 최고금리의 추가적인 인하는 어렵다고 말한 것 또한 이 우려를 반증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금융당국의 최고금리 인하 기조를 저축은행이 맞출 수는 있으나, 이에 따라 제도권 금융에서 탈락하는 저신용자들에 대해서는 금융당국이 어떻게 책임질 수 있을지 막연하다"며 "저축은행을 만든 취지는 시중은행을 이용하기 힘든 저신용자 차주들을 제도권 금융에서 포용하라는 것인데, 무조건적인 대출금리 인하만 강요해서는 저신용자들이 밀려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홍민영 기자 hong93@

국내 83개 기업, '말레이 공략' 나선다

제조·ICT·서비스 업종까지

文대통령 동행 경제사절단

13개 대기업을 포함한 국내 83개사가 대대적인 말레이시아 공략에 나선다.

11일 대한상공회의소는 문재인 대통령의 말레이시아 방문에 동행할 경제사절단 명단을 발표했다.

이번 방문에는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을 비롯해 윤부근 삼성전자 부회장과 공영운 현대자동차 사장, 김준 SK이노베이션 사장, 송대현 LG전자 사장, 장인화 포스코 대표이사, 김태형 GS글로벌 대표이사, 구자열 LS 회장,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등이 참여한다. 대기업 13개사를 포함해 중견기업 14개사, 중소기업 43개사, 기관·단체 13개사 등 83개 업체 250여명으로 구성했다. 제조업부터 정보통신기술(ICT), 식·음료, 서비스업종까지 대규모 말레이시아 공략에 나설 예정이다.

경제사절단 선정 주관기관 역할을 맡은 대한상의는 앞서 지난달 28일 공정한 참가 기업인 선정을 위해 주요 경제단체와 협회, 연구기관, 전문가 등으로 구성한 심사위원회를 개최한 바 있다.

이번 경제사절단은 오는 14일 대한상의와 말레이시아상공회의소(NCCIM), 말레이시아 투자진흥청(MIDA) 등이 공동으로 여는 '한국-말레이시아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한다.

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가 주관하는 'K-Wave&할랄 전시회'와 '한국-말레이시아 비즈니스 파트너십'에도 참여할 예정이다. /석대성 기자 bigstar@

BC카드, 현대차 조정안 수용… 수수료 타결

BC카드는 가맹점 수수료 인상안과 관련해 현대차의 조정안을 수용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로써 현대차와 수수료 협상을 끝내지 못한 카드사는 신한·삼성·롯데카드 등만 남게 됐다.

BC카드 관계자는 "고객 불편을 막기 위해서 현대차 조정안을 받기로 하고 우리 입장을 현대차에 전달했다"고 말했다.

BC카드가 받아들이기로 한 안은 지난 8일 현대차가 전 카드사에 제시한 조정안으로, 수수료율은 1.89%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수수료 협상은 현대차와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우리은행이 BC카드 측에 조정안 수용을 촉구함으로써 타결된 것으로 전해졌다. BC카드는 우리카드와 IBK

기업은행 카드, 지방은행 카드 등 은행계 카드의 수수료 협상을 대신하고 있다. 업계 1~2위사인 신한·삼성카드는 현대차의 조정안보다 다소 높은 수정안을 제시해놓고 현대차의 입장을 기다리고 있다.

한편 신한·삼성·롯데카드는 이날부터 현대차와 가맹점 계약이 해지됐다.

/홍민영 기자